Modern K Music Academy 영상수업

감성과 표현이 좋은 아티스트 BEST 9

한편의 영화같은 무대를 연출하는 아티스트

김나영 1991년 12월 31일 대한민국 출생, 2012년 데뷔 ~ 2019년 현재 활동 중

슈퍼스타K5 출신의 여자 가수. 슈퍼스타K5의 슈퍼위크에서 장원기와 함께 부른 'Street Life' 영상이 네이버TV에서 100만 조회수를 기록했으며, 생방송 진출 최종 미션까지 갔다. 2012년, 활동이 전무한 상황에서 서울예술대학교 선배인 정키의 졸업 공연에서 '홀로' 라는 곡을 부른 뒤 원작자인 정키의 권유로 그의 싱글 앨범에 보컬로 참여하게 된 김나영은 이례적으로 '홀로'라는 곡 하나만으로 각종 음원 차트에서 6개월 이상 상위권 순위를 유지하는 기현상을 일으켰다.이는 대중들이 공감하는 좋은 곡의 힘과 김나영이라는 보컬이 가진 그 특유의 보이스와 감성이 대중들에게 크게 어필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으며, 좋은 가수는 음악만으로 사랑을 받을 수 있다는 너무도 당연한 공식을 보여준 대표적 예라 볼 수 있다. 이후 '네버랜드 엔터테인먼트'에 첫 둥지를 틀어 플라이투더스카이의 컴백 앨범 '컨티뉴엄'의 수록곡 '알 수 없는 이별' 피처링, 네버랜드 프로젝트 '가끔 내가' 디지털 싱글 발표를 시작으로 김나영의 첫번째 싱글 "니 말대로" ,두번째 싱글 "그럴리가",세번째 싱글 "Believe me" kbs 드라마 트로트의 연인 ost, tbN 드라마 연애 말고 결혼 ost, SBS 드라마 냄새를 보는 소녀 ost, KBS 드라마 오렌지 마말레이드 ost, tbN 드라마 풍선껌, KBS 드라마 태양의 후예, KBS 드라마 함부로 애틋하게 등 드라마 OST 여왕이라는 수식어로 대중에 관심을 받아 오다, 드디어 네 번째 싱글 "어땠을까"로 국내 최다 유료 회원를 보유한 사이트 멜론에서 2015년 12월31일~ 2016년1월6일 일주일간 실시간 1위에 등극하였다. 이처럼 김나영은 그녀만이 보여줄 수 있는 특유의 보이스와 감성 보컬리스트로서의 완성도가 더해지며 또 하나의 대형 여성보컬의 등장을 기대하게 하고 있다.

나윤선 1969년 8월 28일 대한민국 출생, 1994년 데뷔~2019년 현재 활동 중

나윤선은 대한민국의 재즈 가수이다. 아버지는 국립합창단 초대, 3대, 7대 단장 나영수이고, 어머니는 성악가 김미정이다. 건국대학교 불어불문학과를 졸업하였고, 1994년《지하철 1호선》의 옌벤 처녀역으로 데뷔했다. 유럽 재즈 스쿨 CIM으로 유학을 가, 우수한 성적으로 Jazz Vocal Diplome 취득하였다. 그 이후 프랑스 보베 국립음악원 성악과를 수석으로 졸업하고, 2000년부터 2001년까지 동양인 최초로 CIM 교수를 맡았다. 2004년 제1회 한국대중음악 최우수 크로스 오버를 수상하였고, 2005년에는 문화관광부 대중예술부문 오늘의 젊은 예술가상을 수상하는 등 두각을 나타내기 시작했다. 나윤선은 끊임없는 노력과 성실함으로 자신만의 독특한 음악 세계를 구축해냈다. 그 결과 프랑스 문화예술공로훈장 슈발리에 훈장 수훈, 독일 저명 재즈 어워드 ECHO JAZZ 올해의 해외아티스트 여자보컬리스트 수상, 프랑스와 독일 골든 디스크 등을 수상하며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재즈보컬리스트이자 유럽 최고의 재즈 아티스트로서 그 예술성을 인정받은 바 있다. 또한, 스위스 몽트뢰 국제 재즈 페스티벌, 프랑스 니스 페스티벌 등 세계 유수 재즈 페스티벌에서 초청 공연하였으며 2014년 소치 동계 올림픽 폐막공연 무대에 올랐다. 특히, 2013년에는 프랑스 최고 극장 파리 샤틀레 극장에서 단독 공연을 하였으며 전석 매진과 15분 간의 기립박수를 이끌어 내었다. 2017년 4월 30일, 유네스코와 몽크 인스티튜트가 주최•주관하는 International Jazz Day All-Star Global Concert 무대에 오른 나윤선은, 'Imagine'과 'Bésame mucho'를 열창했다. 쿠바의 수도 아바나에서 열린 이 공연에서, 에스페란자 스팔딩, 레지나 카터, 안토니오 산체스 등과 함께 'Bésame mucho'를 부른 나윤선은, 모든 연주자가 나와 함께한 마지막 곡 'Imagine'에서는 허비 행콕과 함께 듀오로 곡의 인트로를 불렀으며, 곧바로 리차드 보나와 함께 불어 가사로 노래하며 전세계 관객들의 시선을 사로잡았다. 나윤선은 지금도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재즈 보컬리스트로 활발히 활동 중이다.

딕펑스 김태현(보컬), 김현우(피아노), 김재흥(베이스), 박가람(드럼) 2010년 데뷔 ~ 2019년 현재 활동 중

딕펑스(DICKPUNKS)는 대한민국의 락밴드이다. 2007년 11월 27일 결성되어 현재까지 활동을 하고 있다. 김태현(Vocal), 김현우(Piano), 김재흥(Bass,리더), 박가람(Drum)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2010년 1월 1st EP를 발간, 2011년 10월 첫 번째 정규앨범을 발표했다. 2012년《슈퍼스타K 4》에 참가해 준우승을 차지했다. 탄탄한 라이브 실력과 많은 활동으로 팬층을 두텁게 만들고 있다. 이들은 고등학생 때부터 친구사이로 지내면서 자연스럽게 밴드활동을 해왔다. 멤버중 김현우,김재흥,김태현은 서울예술대학교에 같이 입학하면서부터 같이 음악활동을 하는데 있어 좋은 환경을 만들었다. 최근 멤버들이 병역문제를 해결하면서 본격적인 활동을 하고있어 앞으로의 발전이 기대되는 팀이다. 1장의 정규앨범과 다수의 싱글곡을 발표하였으며 불후의 명곡,비긴어게인등 방송활동도 활발하게 하고 있는 중이다.

Yolanda Adams 1961년 8월 27일 미국 출생, 1988년 데뷔~2019년 현재 활동 중

욜란다 아담스는 1964년 텍사스 주 휴스턴 출신으로 6자매 중에서 첫째로 태어났다. 많은 여성 가스펠 아티스트들이 그렇듯이 그녀 또한 어려서부터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해왔으며, 어린 나이에도 그녀의 뛰어난 음악적 재능은 발휘되어 합창단 활동 등을 하며 그녀의 음악실력을 키워왔다.

1987년 욜란다는 그녀의 첫 앨범 'Just As I Am' (Sound of Gospel 레이블)을 출반하고, 1988년 데뷔하게 된다. 이후 Through The Storm(1991)과 'Save The World'(1993) 앨범을 정규앨범으로 차례로 출반하고, 스텔라 어워즈(Stellar Awards / 매년 흑인 가스펠 아티스트를 대상으로 이루어지는 음악 시상식)에서 2앨범 연속 수상하는 영애를 안게 되었고, (이후 3번 더 수상. 총 5번을 이 시상식에서 수상함) 이를 계기로 그녀는 가스펠 음악계에서 스타로서 자리매김 할 기틀을 마련했다. 계속해서 그녀는 4집 'More Than A Melody'(1995), Live 앨범인 'Yolanda... Live In Washington'(1996), 그리고 5집 'Songs From The Heart'(1998) 등을 발표하면서 꾸준히 인기를 유지해왔다.

이런 꾸준한 인기 속에서 그녀를 다시 한번 새롭게 변화시킨 계기가 있었는데, 바로 소속 레이블을 바꾼 것이다. 첫 앨범인 'Just As I Am'(Sound of Gospel 레이블)을 제외하고 그 동안 그녀의 소속사는 [Verity]였다. 그러나 6집 앨범 'Mountain High... Valley Low'(1999) 발표를 앞두고 일반 팝 메이저 레이블인 [Elektra]로 소속을 바꾸었다. 모두가 짐작한대로 보다 넓은 대중에게 그녀의 음악과 더불어 메시지를 알리기 위함으로 해석할 수 있겠다. 욜란다는 평소 입버릇처럼 달고 다니던 말이 있었는데, 다음과 같이 말하곤 했다. "저는 이미 저의 음악을 알고 있는 사람들 중에서 청중의 숫자를 늘리는 가수들 중에 한 명이 되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녀의 확고한 신념과 그 이면에 숨겨진 깊은 뜻을 알 수 있게 해주는 단적인 증거다.

2000년대 초반 가스펠 음악계에 있어서 최고의 Artist를 꼽는다면 단연 욜란다 아담스를 꼽을 수 있다. 그 만큼 그녀의 음악이 CCM계에서뿐만 아니라 일반 POP계까지 큰 영향력을 미쳤다는 뜻이다. 80년대 에이미 그랜트(Amy Grant), 90년대에는 커크 프랭클린(Kirk Franklin) 등이 CCM 가스펠 음악계과 일반 팝계를 휩쓸다시피 하면서 그들의 진가를 발휘했다면 이제는 욜란다 아담스이다. 그녀의 열풍이 그들에 견줄 만큼 한 몫 거들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미 그녀는 가스펠 음악계에 있어서 전설이 되어버렸다. 그녀의 화려한 수상경력과 폭발적인 가창력이 이를 입증해주고 있다.

정재일 1982년 8월 28일 대한민국 출생, 1994년 데뷔~2019년 현재 활동 중

대한민국의 음악가. 가수 겸 작곡가, 연주자이자 음악 프로듀서. 만 3살이 되던 해, 어머니의 권유로 피아노를 처음 접하게 되면서 음악의 황홀함에 빠져든 뮤지션. 3살에 피아노, 10살에 기타를 접하고 독학으로 웬만한 프로 이상으로 연주할 만큼 그의 타고난 음악적 재능은 소시적부터 천재 소년이라는 타이틀을 달고 다니기에 충분했다. 초등학교 6학년 때는 중학생이라 속이고 고등학교 형들과 밴드를 결성할 정도였다. 성장하면서 10여가지 이상의 악기를 다루고 어떤 악기라도 한달안에 마스터한다. 희귀한 악기 연주자를 찾을 때도 정재일의 이름이 가장 먼저 거론 될 정도. 프로젝트 그룹 긱스 멤버를 시작으로 솔로 음반은 물론이고 다양한 뮤지션들과 협업하며 뛰어난 성과를 냈고 연극, 영화, 뮤지컬 음악 등을 작업하며 프로듀서로서도 인정 받고 있다. 이쯤되면 슈퍼멀티플레이어 장르를 가리지않고 대중음악부터 국악까지 다방면으로 음악을 아우르는 천재 뮤지션이라고 할 수 있다.

최근에는 국악인인 교수 한승석과 함께한 국악 크로스오버 앨범《바리abandoned》으로 2015년 제12회 한국대중음악상 최우수 재즈&크로스오버 크로스오버음반상을 수상했다. 2016년에는 야생화를 같이 작업했던 박효신[10]의 7집 앨범 《I am A Dreamer》 공동 프로듀싱과 공동작곡, 편곡을 했다. 비록 이 앨범을 통해 대중음악 시상식에서 수상을 하진 못했지만 음악 평론가들에게 호평을 받았고 2017년 14회 한국대중음악상 팝 앨범 부분에 노미네이트 되기도 했다. 2017년 4월 12일, 박효신이 소속된 신생 기획사 글러브 엔터테인먼트에 새 둥지를 틀었다. 2017년 영화계 거장 봉준호 감독의 러브콜을 받으며 할리우드 영화 《옥자》의 음악감독을 맡으며 영화쪽에서도 본격적으로 영역을 넓히기 시작했고 11월 트럼프 미대통령 방한 당시 저녁 만찬 무대에 가수 박효신과 축하무대에 섰고 2018년 4월 27일 남북정상회담 환송행사인 '하나의 봄'에서 피아노 연주로 대미를 장식했다.

더원 1974년 3월 26일 대한민국 출생, 2002년 데뷔~2019년 현재 활동 중

대한민국의 가수이자 보컬 트레이너. 스페이스 에이의 초기 멤버[2]였으나 1집 활동을 마치고 탈퇴 후 보컬 트레이너 활동을 했다. 2002년에 1집 앨범 'The Last Gift The One!' 을 내며 솔로 가수로 데뷔했다. 허스키한 목소리와 애절한 음색을 합한 폭발적인 가창력이 특징이며 여러 드라마 OST로 인기를 끌었다. 특히 2집 수록곡 'I Do'는 광고음악으로 삽입되며 현재까지도 인기를 끌고 있다. 대표곡은 2007년에 나온 내 남자의 여자의 OST인 '사랑아', 2013년에 나온 그 겨울, 바람이 분다의 OST인 '겨울사랑'. 더원(The One)이라는 예명은 '세상에 하나뿐인 목소리'라는 의미라고 한다. 나는 가수다 2에 출연해 재조명받은 것이 터닝 포인트가 되어 전성기를 누리게 되었고, 2015년 중국 후난TV에서 방송된 중국판 나는 가수다 시즌3에 한국인 최초로 출연하며 왕성한 중국활동을 하고 있다. (여담으로 팬들에게는 애칭으로 가왕님이라 불린다.) 주로 아이돌 가수들을 트레이닝한 것으로 유명하다. 대표적으로 소녀시대의 태연이 있으며 슈퍼주니어와 동방신기의 보컬 트레이너 담당을 주로 했다. 이후 태연과 듀엣으로 낸 싱글 음반인 '별처럼'이 그야말로 인기를 끌었다. 참고로 이들은 6년전 2집 수록곡인 'You Bring Me Joy part 2'에서도 듀엣을 부른 적이 있다.

최예근 1997년 1월 15일 대한민국 출생, 2012년 데뷔~2019년 현재 활동 중

SBS [K팝스타2]에 출연해 천재 키보드 소녀로 이름을 알린 최예근은 방송 출연 당시 독특하면서도 매력적인 음색, 통통 튀는 묘한 가사로 주목을 받으며 그 실력을 인정받았다. 한림연예예술고등학교 실용음악과를 졸업하였고, 한양대학교 실용음악과에 재학중이다.

이후 'Super moon', '까만 얘기' 등의 싱글을 발표하며 싱어송라이터로 활동을 하였다. 그러던 와중 2017년 최예근 밴드 1st 싱글 '어른'을 발표하며 밴드로 활동을 시작하였고, 또 다른 음악적인 길을 걷기 시작해 현재 밴드 멤버들과 함께 다양한 음악 활동을 해오고 있다. (최근 아이유의 삐삐 커버 영상으로 큰 주목을 받았다.) 최예근밴드 맴버들로는 보컬 최예근을 필두로, 이현승(기타), 이민철(드럼), 김국연(피아노), 김지인(베이스) 총 5명으로 밴드가 구성되어 있다.

김범수 1979년 1월 26일 대한민국 출생, 1999년 데뷔~2019년 현재 활동 중

1999년, <약속>으로 데뷔하여 꾸준히 목소리를 알렸고, 대중들에게 제대로 각인되기 시작한 것은 송승헌, 송혜교, 지진희 주연의 뮤직비디오를 앞세운 2집 <하루>였다.

그 기세를 몰아 2003년, 유오성, 장서희를 앞세운 뮤직비디오와 함께 3집 타이틀곡 <보고 싶다>를 내세웠으나 정작 히트한 것은 SBS 드라마 스페셜 '천국의 계단'에서 그의 3집 타이틀곡이었던 '보고싶다'를 주인공 테마로 활용하면서부터다. 이후 2004년에 발표한 4집의 타이틀곡인 '가슴에 지는 태양'도 나름 히트하면서 유명세를 이어갔고 2006년 5집을 발표하는 동시에 현역으로 입대하여 복무했다.

2008년 3월에 제대한 후 5개월 만에 6집 '슬픔 활용법'으로 활동했으며 2009년 9월 데뷔 10주년 기념 디지털 싱글 'Slow Man'을 선보였다. 2010년 9월에 7집 파트 1 앨범을 발표하였다. 타이틀곡은 박진영 작곡의 '지나간다'. 나는 가수다의 성공 이후 2011년 6월에는 7집 파트 2 앨범을 발표하였다. '끝사랑'이 타이틀로 가수의 특성도 잘 살렸고 곡도 좋은 평가를 받았다.

아이유 1993년 5월 16일 대한민국 출생, 2008년 데뷔~2019년 현재 활동 중

대한민국의 가수 겸 탤런트. 본명은 이지은이며, 아이유(IU)는 예명이다. 아이유(IU)는 '음악으로 너와 내가 하나가 된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 2008년에 데뷔하였다. 국민 여동생 이라고도 불렸다.

현 시대 여성 솔로 가수 중에서 독보적인 위치를 점하고 있는 음악계의 여왕이며, 그 어떤 장르도 소화해내는 만능형 가수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로엔 소속 가수 중에 듀엣이나 콜라보 없이 스스로의 힘으로 1위를 기록한 가수는 아이유가 유일하다. 가수 이외의 커리어도 꽤 많은 편인데, 브라운관에서 종횡무진 활동을 하는 현역 가수 중 한 명이기도 하다.

2010년 가온 집계 이래 대한민국 가수 중(그룹•솔로 모두 포함) 음원 누적 스트리밍 및 다운로드 1위라는 영예를 보유하고 있다.

이 기록이 시사하는 바는 크다. 음원 스트리밍 기록을 과거 1980, 90년대 기준으로 비교하면 음반 누적판매량 1위 기록과 비슷한 느낌이라 볼 수 있다. 이러한 성과의 바탕에는 타이틀곡만의 특출함보다는 앨범 수록곡 전체의 완성도로서 인정받는다는 점이 자리하고 있는데, 실제로 앨범 부문에서 특출한 수상 실적을 내고 있으며 음반 발매 시 수록곡 전곡을 들어보는 대중들도 많은 편이다.